

주요 행사

미국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협회는 벤처기업들의 침체된 내수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해외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국 조달시장의 규모는 연간 5000억불 규모로 우리나라 연간 수출규모의 3배에 달하는 황금 시장이지만 지금까지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Commercial market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시장점유율이 0.1%도 안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13일 강남 역삼동 소재 한국기술센터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prime contractor인 DUCOM inc.의 듀크 정 대표를 초빙하여 조달시장진출을 위한 제반절차와 효과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 20여개업체 50여명의 기업관계자와 협회 오행근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는 1시간의 설명회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앞으로도 미국조달시장을 비롯하여 해외수출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일지

- ▶ 협회 웹사이트가 6일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에 개편된 웹사이트에는 개인회원을 받으면서 회원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협회 웹사이트는 벤처넷과 연동하여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향후에 기업 및 개인간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벤처를 대표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 협회 오행근 전무는 올해부터 벤처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회원사 방문을 가진다. 지난 8일부터 휴맥스, 비트컴퓨터를 시작으로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협회에 바라는 점과 벤처산업의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 ▶ 지난달 벤처넷 오픈을 기념하여 ‘아이리브벤처’ 이벤트를 마련했다. ‘아이리브벤처’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벤처넷 웹사이트(<http://www.venturenet.or.kr>)에 접속해 이벤트게시판에 ‘내가 벤처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2000자 이내로 올리면 된다. 마감은 이달 25일이며, 좋은 글을 선정하여 디지털 캠퍼터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 알림 •

<KOVA News> 지면 광고 안내

협회는 지난 해부터 <KOVA News>를 발행하여 회원사 및 INKE 회원, 유관기관 등 2000여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9000여 벤처기업을 비롯해 정부기관, 학계, 언론계, 금융사 등에 10000여 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뉴스레터 <KOVA News>에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광고 페이지를 개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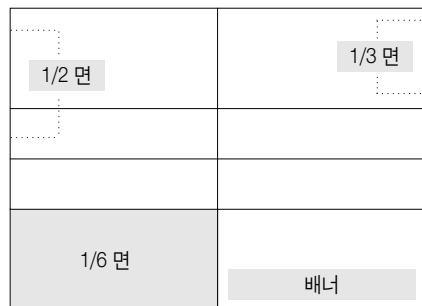
- 1. 디자인 유형
 - 표지 2도, 내지1도

- 2. 광고 기간
 - 1개월, 분기별, 년별로 구분

3. 광고 크기

예)

구 분	지 면
표 지	뒷면 전면
	앞내지
	뒷내지
	배너 광고
본 문	본문 전면
	1/2 면
	1/3 면
	1/6 면
	배너 광고



문의 : 홍보관리팀 이영호(02-6009-4100)